

# 시장경제와 사랑

황의서(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논문초록

본 논문은 경제행위를 가치중립적인 자연적 현상으로 보려는 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랑을 경제행위의 진정한 동기로 강조한다. 특히 자기애와 이기심을 구분한 아담 스미스의 주장을 재조명하고, 사랑을 외면한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사욕에 근거한 경제행위들은 무임승차, 외부성, 빈부격차 등의 문제들을 발생시키면서 시장실패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경제가 원만한 발전을 이루어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접목된 자기애가 이기심을 통하여 타인사랑으로 나타날 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원하는 풍요로운 사회가 건설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은 패배자에게도 회생의 길을 열어주고, 사랑은 나눔의 경제를 통하여 불균형을 스스로 해소하는 힘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청기기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려면 경제인 각자가 이기심을 사욕이 아닌 사랑과 접목시켜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자기애, 이기심, 사욕, 경쟁과 사랑, 연역법, 변증법,

## I. 사랑과 자기애와 사욕의 개념 정리

사랑이라는 개념은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이해하는 폭이 다르기 때문에, 학문적 분석의 도구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아가페로 제한하려고 한다. 에로스나 필레오는 개인의 감정이나, 경험, 문화 등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경험세계를 능가하는 초월적 능력을 의미한다. 아가페의 의미를 가진 사랑은 진리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아가페는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 개념의 성격을 가진다. 아가페가 의미하는 사랑은 신의 성품을 반영하므로, 영원하고, 변질되지 않으며, 인간이 가지는 육체적 한계를 능가할 수 있다. 아가페로 이해되는 사랑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충분히 갖춘 개념으로 학문적 분석도구로 사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려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대개심(reformation)을 체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아담 스미스, 1996: 282). 창조주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한다. 자신의 의지가 신의 의지와 일치될 이루는 사람은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투누스, 아퀴나스 등의 주장에 따르면 윤리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

기독교에서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경제행위는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이루는 행위이다. 경제행위의 동기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그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면, 자아사랑과 이웃사랑간의 균등관계를 주장하고 있다.<sup>1)</sup>

자아사랑과 이웃사랑이 서로 균등관계를 형성하며, 교환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동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자기애이고,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사랑인 것이다. 자기애,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본질은 동일한 아가페이고, 단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는 것뿐이다<sup>2)</sup>.

아담 스미스는 자기애(self-love), 이기심(selfinterest), 사욕(selfishness)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자기애는 기독교적 사랑에 기초한 거룩하고, 선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웃의 이해관계보다 더 크게 책정하고,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더 큰 이해를 위해서 자신의 이해를 희생시킬 수 있는 힘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고귀한 성품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온다(Smith, 1976: 137). 자기애는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교류하면서 윤리적이고

1) ",so it is great precept of nature to love ourselves only as we love our neighbour,(A. Smith, 1976: 25)".

2) 마태복음 22장 37절 "Love the Lord your God ---" 과 39절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에서 love의 그리스 원어는 아가페이다.

선한 행동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허치슨에 따르면 자기에가 자신만 혼자 사랑하고, 선한 생각만을 즐기면서 아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선한 자기에가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강한 동기와 함께 결합할 때에 긍정적 영향들이 나타난다(A. Smith, 1976: 303).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기심과 자기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한다.(Graafland, 2007: 84). 그러나 이는 아담 스미스가 분명하게 구분한 두 개의 개념을 혼동하는 잘 못을 범하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이기심은 분업의 확대라는 구체적 경제행위를 유발하면서 이웃과 사회에 유익을 주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 거룩한 사랑의 기초위에 이기심이 발휘될 때에, 이웃과 사회에 선한 결과들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심이 사랑이 아닌 사욕에 기초하여 나타난다면 이는 비윤리적 행위들을 유발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사욕은 탐욕에서 나오고, 부도덕한 행위들을 유발할 수 있다. 사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기중심적인 사욕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웃과 사회가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타인의 이해관계를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만 관찰하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균형 잡힌 행동을 기대하기 힘들다(Smith 1975: 135). 아담 스미스는 맨더빌의 '사적인 악덕이 공공의 유익'이라는 주장은 천박한 궤변이고, 경제행위에 존재하는 윤리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한다(Smith 1975: 312).

아담 스미스가 구분한 사욕, 이기심, 자기에에는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구분한 인간의 기본 성격인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로도 이해될 수 있다 (프로이트, 1997). 원초아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나타내고, 사욕과 유사하다. 초자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접목된 자기에와 유사한 성품을 갖는다. 원초아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우선한다면, 초자아는 이웃과 사회의 필요를 인식하면서 서로 대립할 수 있다. 자아는 중립적이고, 이성적 요소를 갖고 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 방안들을 고안해 내는 자아는 이기심으로 비유될 수 있다.

프로이트의 개념들을 이용한다면 자기에와 이기심의 결합은 초자아와 자아가, 사욕과 이기심의 결합은 원초아와 자아가 결합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 역시 인간의 합리적 경제행위가 어떠한 성품과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그 현상과 결과들을 다르게

보고 있다. 원초아 또는 사육에 기초한 경제행위는 자기보존을 위한 본능적 행위들을 중요시하고 이웃사랑에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초자아 내지는 자기에에 기초한 경제 행위들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도 고려하는 윤리적 행위들을 낳는다.

에리히 프롬 역시 인간의 합리적 행위는 선과 악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는 그 동기가 사랑인가, 사육인가에 있다고 본다. 사육에 기초한 행위는 타인의 필요나 이해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육은 욕심에 그 뿌리를 두고, 절제를 모르고, 끝없는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사육은 사랑의 결핍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줄 모른다(Fromm, 1939: 522).

과도한 사육은 사회를 불균형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자신의 이익에만 충성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전체적 파급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를 가능하게 만들고, 전체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 갈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나치즘이나 식민주의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과격한 노동조합을 앞세워서 사회질서를 붕괴시키기도 한다.

한편 자기에는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려고 한다. 타인의 이익을 부도덕하게 갈취하거나 노임을 착취하려는 행동을 할 경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절제한다. 에리히 프롬의 주장에 따르면 사육과 자기에는 그 뿌리가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역시 윤리적으로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기심이 누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경제행위는 다르게 나타난다. 사랑이 이기심을 지배하면 경제행위는 윤리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사육이 이기심을 지배하면 경제행위는 타인과 사회는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제동물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경제사회에는 투기가 난무하고, 적자생존의 법칙이 절대법칙으로 군림한다.

일반적으로 아담 스미스 이후의 경제학자들은 경제행위의 동기로 이기심만을 강조하고, 사랑과 사육의 차이점을 배제시켜왔다. 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제학의 분석대상에서 배제시키려는 추세에 합류한 결과이다. 아가페와 분리된 이기심은 경제행위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위대한 도덕적 행위로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오직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지대추구(rent seeking)를 하는 경제동물로 인간

을 묘사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학자 센에 따르면 경제학을 공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Sen, 1987: 15). 경제공학은 경제현상을 하나의 물리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자연법칙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자연적 현상과 자연법칙을 강조하면서, 사랑보다는 사욕을 경제인의 자연적 성품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sup>3)</sup>.

아담 스미스가 인지했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은 사라지고, 오직 사욕에 기초한 이기심만이 경제행위를 주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이웃과 사회의 이익은 외면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연적 경제행위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 II. 사랑 없는 시장경제의 한계와 모순

### 1. 자본과 소유의 집중현상.

경제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은 두 개의 축인데, 효율성은 자본의 집중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공평성은 이를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 효율성과 공평성은 단기적으로 볼 때 서로 상충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 상생의 관계를 맺는다. 시장경제의 경쟁 체제는 효율적 자본운영을 보상해주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자본을 흡수하고, 비대해지도록 권장한다. 결국 시장경제는 자본과 소유의 집중현상을 초래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공평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약한 자를 도우려는 사랑의 마음에 기초한다.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경쟁에서 뒤진 사람을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한 시장경제를 장기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효율성의 차이로 인한 부의 집중 현상이 시장경제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로, 중금주의 시대에 영국 경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인도와

3) 케인즈 역시 기업인이 갖추어야할 덕목으로 동물적 영성(animal spirit)을 강조하면서, 경제인의 직관적 능력을 동물적 요소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경제인의 갖추어야할 거룩한 성품을 외면하는 것이다(Keynes 1936).

의 무역에서 많은 이득을 보고, 금과 은을 축적해 갔다. 영국에 많은 금과 은이 쌓이면서 영국은 마침내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인도의 금과 은이 모두 영국으로 들어온 후에 인도는 더 이상 영국의 상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시장경제가 더 이상 건강하게 기능하기 어렵게 되었다. 건강한 국제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국은 생각을 바꾸었다. 한번 영국에 들어온 금과 은의 유출을 금지해오던 중금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인도로 금과 은을 수출하여 영국의 상품을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도 사람들에게 영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제공한 것이다. 국제시장경제는 붕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고, 영국은 자유무역주의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였다.

자본이 한 국가 집중되면 국제무역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모든 국가에 손실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국제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빈곤한 국가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사랑에 기초한 나눔의 경제가 실천될 때에 공평한 사회가 건설되는 것이다.

칼 맑스는 자본의 확대재생산 법칙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를 주장하였다. 경제가 순환하면 할수록 자본가의 자본은 확대되고, 노동자들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진다. 자본가는 자본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생산시설의 기계화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은 점차 일자리를 잃게 된다. 실업자들이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감소하고, 자본가들의 상품 판매수입 역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혁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소유와 자본집중 현상은 경제순환을 붕괴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가지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독일 경제학자 와그너는 정부의 사회적 기능을,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는 정부의 분배기능을 강조한다. 경제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빈곤을 퇴치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들을 도입하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나눔의 경제정책들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적 불균형들은 해소되어갔다. 시장경제의 원만한 흐름은 구성원들 간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할 때에 가능하다. 공평한 사회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유지시킨다.

영국과 인도,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교류를 볼 때에 시장교환은 균형을 자동적으로 이루어 간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시장교환은 시간이 갈수록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영국이 인도의 금과 은을 갖게 되는 것은 상품 수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

에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자본가 역시 낮은 임금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자본이 확대되는 것을 자연법칙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노동자 역시 자신의 낮은 임금을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자연적 결과라고 수용할 수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불균형은 자본가도 노동자도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려할 때에는 인식되지 않는다. 또한 이를 자연법칙의 결과로 주장하면 더 이상 문제로 삼지 않으려고 한다.

여기에서 불균형을 문제로 삼고 시정하려는 마음은 양쪽 모두를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제 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에 불균형이나 빈부격차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자본과 소유의 집중현상과 이로 인한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이다. 경제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이 필요하다. 경제인들 간에 공동체 의식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불균형을 문제 삼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어렵다. 고통 받는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느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자기애를 가진 자본가는 심화되어져 가는 소득의 불균형을 보게 되고, 이를 시정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부유한 자가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할 때에 시장의 불균형은 다시금 균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자본가의 열정과 노력은 인간의 합리적 생각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아가페의 힘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림 받을 경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필요한 만큼 나누어 갖게 된다<sup>4)</sup>. 결국 사랑의 힘은 인간의 합리적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는 나눔과 희생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시장경제가 균형을 잃지 않고, 유지되도록 한다.

## 2. 무임승차와 외부성

현실적으로 시장실패로 인하여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개입이 주장되고 있다(Hyman, 2005: 140). 시장실패의 대표적 예

4) "They are led by an invisible hand to make nearly the same distribution of the necessaries(Smith, 1976: 184)."

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국방이나 치안이 언급된다. 환경오염이나 최근의 금융위기 역시 시장실패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언급되고 있다(Stiglitz, 2008).

실제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원인은 경제인들의 잘 못된 행동에서 나온 것이다.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경우,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는 주장이 그 기초를 이룬다. 여기에서 합리적 행동이란 실제로 양심을 속이는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양심을 속인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고, 이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의 결과이다.

사랑을 외면한 경제행위는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고, 오직 상황에 적응하려는 거짓된 행위도 용납하려고 한다. 사랑을 외면하고 오직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계산적 경제행위는 외부성을 발생시키고, 장기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중금속들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들은 생산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동체 전체에게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사랑이 외면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사랑의 회복이 아닌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차선의 방안이다. 무임승차나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우선 경제인 각자가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비양심적 경제행위들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면, 우선은 비양심적 경제행위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을 회복하는 지름길은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결국 시장실패를 방지하는 지름길은 양심의 회복 특히 자기애의 회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이 회복되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

### 3. 합리성의 한계

사회학자 맑스 베버는 합리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탈 합리적 행동과 합리적 행동, 둘째는 가치 합리적 행동과 목적 합리적 행동, 셋째는 주관적 합리성과 객관적 합리성이다(부루베이커, 1985). 그는 경제에서 사용하는 합리성의 한계를 비판한다. 경제는 목적 합리적 행동과 과학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과학적 합리성은 인간의 인지능력 한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객관적, 과학적 합리성



만 가지고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는 고유의 존엄성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하면서, 가치 지향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철학자 칸트 역시 인간이 합리성만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면 기계와 같은 인간이 되고, 자유는 무가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합리성을 능가하는 초월성이 인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합리성을 뛰어 넘는 판단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것은 의지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유의지에서 자유는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 의지는 자연법칙 안에서 작동하고, 자유는 이를 초월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자연을 초월하거나,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자유의지는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반영한다.

합리성을 경제인의 유일한 성품으로 본다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가치판단능력을 배제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Etzioni, 1988). 기업에서도 합리성만 가지고는 성공한 경영인이 되기 어렵다. 합리성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답을 알려준다. 그러나 성공한 경영인에게는 창조성이 요구된다. 주어진 답안 중의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통찰력을 가지고 성공한 경영사례로 1995년 3월 9일 500억원 상당의 애니콜 핸드폰을 불태워버린 사건을 들 수 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한 무모하고, 비합리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그 결과는 애니콜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만들었다. 합리성을 뛰어 넘는 판단력과 통찰력 때문에 삼성전자는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다(강준만, 2005).

합리성에 기초한 산업의 발달은 자연환경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각 국가들이 합리성에 기초하여 자국의 산업을 육성시키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면 합리성에 기초한 생산의 극대화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고려하고 사랑하는 절제의 미덕도 필요하다(레이먼드 머피, 2000).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랑은 합리성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역시 모두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완벽한 균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의 이익도 동시에 고려할 때에 완벽한 균형이 형성된다. 이는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외부적 요소가 개입할 때에 가능하다. 즉 경제인의 행동 규범 속에 시장경제를 초월해서 존재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학자 마샬 역시 경제인에게 필요한 성품으로, 합리성 못지않게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다(Marshall, 1959). 제품을 생산하는 경영인이나, 경제인 모두 미래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 능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다. 합리성은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합리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초월적 능력이나 직관이 경제인에게 필요하다.

합리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의 근원은 창조주의 능력 안에 있다. 인간이 창조주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초월적 능력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성경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13)” 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더불어 초월적 능력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 III. 사랑을 통한 시장경제의 완성

#### 1. 사랑을 통한 연역법의 완성

경제이론은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귀납적 방법은 경험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연법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연역적 방법은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경제행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합리적 경제행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연역적 방법이 적합하다. 표 1)은 경제행위의 동기를 연역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If ---, then ---. 으로 이어지는 연역법적 논리 체계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단어는 사랑이다. 사랑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 자기에는 합리성을 추구하고, 합리성은 효율성을 추구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경제행위에서 추구하는 합리성과 효율성은 모두 사랑 안에서 이루지는 것이다. 사랑을 통하여 경제이론의 연역법 체계가 완성되

어 진다.

연역법을 반대방향에서 풀어간다면 다음과 같다.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기업의 생산량이 결정되는 것은 이윤극대화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근본원인은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행동은 합리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합리적 경제행위가 나타내는 원인을 아담 스미스는 자기애로 설명하고 있다.

〈표 1〉 경제논리의 기초가 되는 연역법 체계

```

If 사랑,      then 자기애.
=====
If 자기애,    then 합리적.
If 합리적,    then 효율적.
If 효율적,   then 효용극대화 내지는 이윤극대화.
If 이윤극대화, then 한계효용 = 한계비용.
    
```

이러한 연역법이 계속이어 질 경우 자기애를 품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자기애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제에서 나오는데, 이 명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 결국 자기애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나 < 표2> 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애를 사욕으로 바꾸고, 경제행위의 동기를 사랑과 분리시킬 경우,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합리성과 효율성은 순수한 공학적 분석방법만을 다루게 된다.

〈표 2〉 사욕으로 시작되는 연역법 체계

```

If 사욕,      then 합리적.
If 합리적,    then 효율적.
If 효율적,   then 효용극대화 내지는 이윤극대화.
If 이윤극대화, then 한계효용 = 한계비용.
    
```

경제학을 공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은 합리성 추구를 출발점으로 하고, 경제현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 경우 모든 경제행위는 객관적 현상으로 이해되고,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경제인이 소유한 감정이나 도덕심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수학적 분석 기법은 정밀성에서 그 장점을 가지지만, 경제인의 행동동기를 사랑과 분리시킴으로 균형점은 공동체에게 유익을 베풀지 못할 수 있다.

사랑을 모르는 이기적 행위는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타인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예로, 유효기간이 지난 원재료를 가공하여 식품을 만들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사육에 기초한 행위이다. 이 경우 기업가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소비자는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나쁜 경우 건강의 손실도 지불해야 한다. 사랑에 기초한 기업가는 자신이 가공한 식품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소비할 수 없으면,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등하게 또는 더 우선시하게 때문이다.

경제행위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행위의 동기가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사랑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지니기 때문에, 사랑에 기초한 자기애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준다. 경제인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위대한 조정자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행동하려 한다. 그러나 사육에 기초한 경제행위들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부분적으로는 이득을 가져다주지만, 공동체 전체에게는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다. 사육에 기초한 부분균형의 합인 전체균형은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결국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이 올바르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내보내는 것이다.

시장의 불균형을 방지하려면, 경제행위의 동기가 사육이 아닌 사랑에 기초하도록 연역법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경제행위의 출발이 사랑에 기초하고, 모든 과정 속에서 도덕성이 회복되도록 하는 방법들이 앞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경쟁과 사랑

공산주의 사회는 경쟁이 없는 사회라고 맑스는 주장한다.<sup>5)</sup>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는

현실에서 도태되었다. 경쟁이 없는 사회는 발전을 향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 항상 옛 관습을 반복하는 사회가 된다. 슈페터가 주장하는 혁신(innovation)이 불필요하다. 기술혁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는 정체된 사회이고, 변화가 없는 사회이다. 정체된 사회를 선호한다는 것은 인류가 그동안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해온 과정들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다.

실제로 인간사회는 스스로 변화되어 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성품은 모든 생명체가 가진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능동성은 인간이 가진 성품이고, 창조주를 닮은 성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자신이 가지는 비교우위의 성품을 찾으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필요하고, 이것이 곧 경쟁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자신의 능력을 찾아가게 만든다. 경쟁은 곧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을 주려는 제도이다. 각자가 자신의 비교우위에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해가는 것은 결국 자신과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도 경쟁을 시인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신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경쟁을 한 것을 나쁘게 보지 않으신다. 단지 경쟁에서 뒤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 피 값을 묻고 계신 것이다. 경쟁에서 뒤진 사람이 악한 결과를 만들었을 때에 이를 책망하신다.

야곱의 부인 라헬과 레아는 서로 경쟁하면 자식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경쟁을 질타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자식을 낳는 축복을 주셨다. 부인간의 경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경쟁으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는 격차가 발생하지만, 전체로 보아서는 총 생산량이 증가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서로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계신다.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만들어 냈는지 묻고 계신다. 예수님은 경쟁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고, 한 달란트를 묻어 두었던 사람을 책망하신다. 경쟁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경쟁은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인 것이다. 경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실현하는데 있다.

5) 경쟁은 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이고, 공산주의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여 발전해간다고 맑스는 주장한다(Marx, 1979: 323).

경쟁의식 안에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경쟁의 결과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에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기쁨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을 모르고 시기심과 질투로 무장된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뒤떨어졌다는 것만을 부끄러워 할 뿐이지,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사실에 기뻐할 줄을 모른다. 사랑이 없는 경쟁은 경쟁자들에게 상처를 가져다줄 수 있다. 개개인의 결과만을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경쟁이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려면 사랑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예로 비교우위의 교역으로 인하여 증가된 생산량을 교역 당사자 모두가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가된 생산량을 한 쪽에서만 가진다면 비교우위에 기초한 교역은 무의미해진다. 이 경우 경쟁은 악용될 수 있다. 경쟁을 살리는 길은 공정한 보상이 항상 뒷받침되는 것이다. 경쟁으로 인하여 모두에게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에 기초할 경우 서로 다른 재능들은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간다. 사랑에 기초할 경우 경쟁은 각자가 가진 서로 다른 재능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경쟁은 사욕에 기초한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한다. 자신의 재능을 자신만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주기를 꺼려한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사랑하지 못하면 경쟁자를 죽이려는 마음도 갖는다. 경쟁자를 죽이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다음 시기에는 홀로 생산을 하게 되고, 경쟁이 없는 상황이 된다. 경쟁 없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혁신이 필요 없게 되고, 스스로 도태되어가는 것이다. 사욕에 기초한 행동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자신과 전체를 빈곤 속으로 몰아간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재능을 자신의 것으로 알기 보다는 하나님의 선물로 의식하기 때문에, 재능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봉사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랑에 기초한 경쟁은 경쟁자를 죽이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한다. 경쟁의 결과는 자신과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사랑에 기초한 경쟁사회는 모두에게 자신의 비교우위를 찾아서 서로에게 더 많은 유

익을 주려는 활기찬 사회를 건설해간다. 경쟁은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다. 경쟁이 없는 시장경제는 서로 비교우위의 상품개발을 하지 못하면서, 교환이 무의미하게 된다.

경쟁은 상생과 공존의 사회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이다. 경쟁이 없는 경우 상생의 사회를 계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는 정보부족으로 불가능하다.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경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패자에게도 사랑의 손길이 다가가기 때문에, 희생의 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실행되는 경쟁은 패자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회를 약속한다.

### 3. 사랑의 변증법과 경제발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사랑은 형태이기 보다는, 능력이다. “사랑은 말하기 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그는 주장한다(Kierkegaard, 1995: 359). 그에 주장에 따르면 사랑은 진리로 인도하는 힘이 있고, 또한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보유한다. 사랑의 교류는 생명의 교류를 동반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 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식물의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사랑을 주면 그 것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

생명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발현하려면, 사랑은 행동을 동반해야 한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나무가 자라게 된다. 한 사람이 사랑에 이끌리어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혜택을 누린다. 희생으로 발현된 사랑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경우가 많다. 맹자의 교육 역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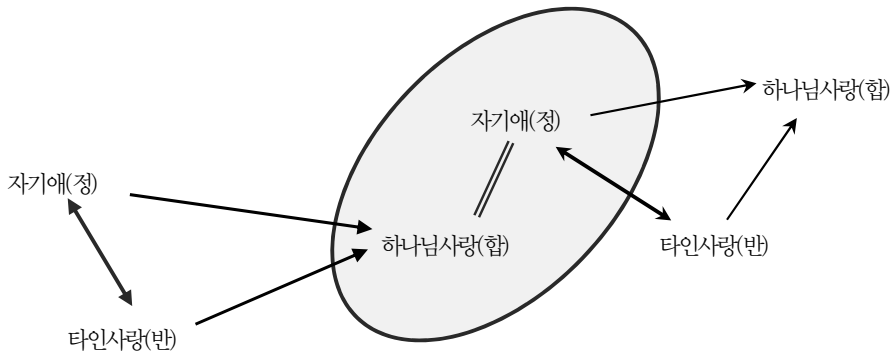
사랑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만큼 자신 안에 쌓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내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적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적다. 사랑은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사회일수록 안정적이다. 사랑이 적은 사회는 조그마한 충격에 크게 요동친다.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쉽게 붕괴된다.

독일 철학자 헤겔 역시 자유로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데,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본다. 자기애와 타인사랑은 서로 분리되기 보다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통일체를 이루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애를 향상시키려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과도 같다. 사랑이 서로 연관되어 생명력을 어떻게 형성시켜 가는지를 헤겔의 변증법을 기초로 이해할 수 있다(Hegel, 1981: 230).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애와 타인사랑을 변증법의 정과 반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애에서 인간은 자신을 목격하고, 인식한다. 그리고 자기애를 기초로 타인을 사랑하면서 자기애를 떠난 타인사랑을 실천한다. 자기애는 정이 되고, 타인사랑은 반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애와 타인사랑에서 공통점으로 존재하는 사랑을 알게 된다. 자기애와 타인사랑을 모두 합한 위대한 사랑은 합의 상태이고, 하나님사랑의 실현이다. 합의 상태에서 발견된 자기애의 모습은 더욱 완숙한 사랑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가까운 자기애이다. 다음 단계에서 다시 시작되는 정-반-합의 과정은 더 완숙한 사랑에서 출발한다.

〈그림 1〉 사랑의 변증법



헤겔의 변증법에 따르면 자기애는 주관적 사랑에 속하는 것이고, 타인사랑을 통하여 구체적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애와 타인사랑이 합으로 이루는 사랑은 일반성을 갖춘 실천적 사랑의 성격이 된다 (Hegel, 1981: 230). 즉 주관적 사랑이 실천적 사랑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타인사랑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자기애가 타인사랑과 결합할 때에만 실천적 사랑으로 완숙되는 것이다. 자기애와 타인사랑이 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기애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타인사랑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적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 결국 자기애에 기초한 이기적 행위와 나눔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합되고, 서로의 상생관계를 통하여 더욱 완숙한 사랑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사랑의 변증법은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 된다.

한편 자기애만 존재하고, 타인사랑이 없는 경우에는 실천적 사랑이 없고, 단지 주관적 사랑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사랑의 객관성과 일반성이 결여되고, 사랑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가지 못한다. 사랑이 실천적 힘을 발휘하려면 자기애와 타인사랑 간의 원만한 상호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자기애가 타인사랑으로 연결될 때에만 사랑이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헤겔의 주장에 따르면 정신이 먼저 변해야 현상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사랑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면 경제도 발전하는 것이다.

예로, 빵 가게 주인이 자기애를 기초로 만든 빵을 다른 사람이 잘 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건강해진다면, 타인사랑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 자기애가 타인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빵 가게 주인이 만든 빵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팔리지 못하면, 자기애는 타인사랑으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다. 사랑의 실천에 실패한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한 자기애는 주관적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다. 자기애가 시장경제에서 균형점을 찾는데 기여하고, 타인사랑으로 구체화 될 때에만 사랑은 실천적 사랑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그 균형점은 새로운 자기애를 위한 출발점으로 이용된다. 빵 가게 주인이 자신의 재능을 더욱 사랑하고, 개발 할수록 더 좋은 빵들이 만들어 진다. 그리고 그 빵들이 잘 팔릴 때에 타인사랑도 구체화된다. 시장경제의 균형점들이 더욱 완숙한 실천적 사랑들을 반영할 때에 경제도 더욱 발전하게 된다.

#### IV. 맺는말

아담 스미스가 경제행위의 동기로 강조한 이기심은 사랑에 기초한 선한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기심을 자연법칙에 기초한 자연 현상으로 이해하고, 사랑과는 분리시켜왔다. 이기심을 사랑과 분리된 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면서 경제학에서 윤리적 요소는 배제되어 왔다. 규범적 요소가 제거된 후에 경제학

은 경제공학의 대상이 되었고, 오직 합리성에 기초한 이윤추구 내지는 효용극대화만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랑이 배제된 곳에 사욕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기심은 사욕과 결합되고 비윤리적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비윤리적 경제행위들은 시장실패 내지는 교환경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정당화 시켜갔다. 최근에는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면서 경제인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 요소들을 배제시켜온 경제 분석의 전통은 비윤리적 행위들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올바른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학이 현실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요소들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교환경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살려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그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를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손의 의지가 담고 있는 대표적 규범은 사랑일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행위의 동기를 자기에로 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생명체와 질서의 근원이다. 경제가 발전하는 것도 그 안에 사랑이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자기애는 타인사랑으로 이어지면서, 실천적 사랑이 되고, 열매를 맺어간다. 사랑에 기초한 이기심은 타인사랑을 실현하면서 비도덕적, 비양심적 경제행위들을 스스로 억제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큰 자기애는 큰 타인사랑을 가능하게 하면서, 큰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이는 경제발전의 확대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사랑과 접목된 자기애는 나눔의 경제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풍요로움 속에도 갈등 없는 사회가 된다. 그러나 사욕에 기초한 이기심은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풍요로움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신의 욕심만을 충족시키기에 바쁘면서 나눔의 경제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사회적 불균형과 갈등을 동반한다. 풍요로운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불균형을 스스로 해소시켜가야 하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목된 자기애만이 창조주의 뜻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원하는 창지기의 역할은 마음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을 요구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접목된 자기애가 이기심을 통하여 타인사랑으로 나타날 때에 실현된다. 한편 자기애와 타인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자기애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타인사랑을 먼저 실행할 수도 있다.

앞으로 경제행위에 기초가 되는 사랑의 역할이 더 많이 인정받고, 밝혀질 때에 경제학은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해가는 실용적 학문으로 재평가 받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준만 (2005). 『이건희 시대』. 인물과 사상사. 서울.
- 김승욱 (2008). “한국 기독교 경제학의 논쟁점과 과제”. 『신앙과 학문』 13(1). 2-38.
- \_\_\_\_\_ (2009). “한국에서 재물관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앙과 학문』 14(3). 41-93.
- Murphy, Raymond (1994). *Rationality and Nature*. Westview Press. 레이먼드 머피(2000). 오수길, 정용일 역. 『합리성과 자연』. 도서출판 한울. 서울.
- Brubaker, Rogers (1985). *Review of the Limits of Rationality*. Social force. 브루베이커 (1985). 라제민 역. 『합리성의 한계』. 법문사. 서울.
- Smith, Adam (1976).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Oxford. 아담 스미스(1996). 박세일 민경국 공역.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서울.
- 이재울 (1999). “경제학에 미친 공리주의 영향과 이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 『신앙과 학문』 4(4). 58-72.
- Freud, Sigmund.(Strachey, James) (1962). *The Ego and the id*. New York. 지그문트 프로이트(1997). 박찬부 옮김. 『쾌락 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서울.
- 황희서 (1995). “아담스미스의 경제윤리”. 『국제경제연구』 1(1). 215-239.
- \_\_\_\_\_ (2003). 『경제와 신앙』. 시그마프레스. 서울.
- 황희영 (2009). “성경적 경제학의 재구축을 위한 인식체계의 탐색”. 『신앙과 학문』 14(1). 261-297.
- Black, R. A. (2006). “What did Adam Smith say about Self-love ?” 『Journal of Markets and Morality』 9(1). 7-34.
- Etzioni, A. (1988). *The Moral Dimension. Towards a New Economics*. New York. Free Press.
- Fromm, Eric (1939). “Selfishness and Self-love.” *Journal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Process* Vol2. 507-523.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1981). *Wissenschaft der Logik II*. Duesseldorf.
- Hyman, David N. (2005). *Public Finance*. Ohio: Thomson.
- Kierkegaard, Soren (1995). *Works of love*. Edited and Translated by Howard V.

- Hong and Edna H. Hong. Princerton University Press.
- Mandeville, Bernard (1997). *The fable of the bee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 Marx, Karl(1979). *Einleitung zu den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Berlin: Dietz Verlag.
- Marshall, Alfred (1959).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 Co LTD.
- Sen, Amartya (1987). *On Ethics and Economics*. Oxford: Blackwell.
- Smith, Adam (1976).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1937).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 Stiglitz, Joseph E.. Market Can't Rule Themselves. in Newsweek. 2008. Dec. 31.

## Abstract

### Economy and love

Eui-So Hwang(University of Seoul)

Although Adam Smith emphasizes economic behavior as a normative behavior based on self-love, most economists focus on natural phenomenon to find out the natural law. The distinction between selfishness and self-love is not seriously as an essential factor to analyze economic models. The market failure and recent financial crisis are caused by moral hazard. The problem of free rider, externality, unfair distribution etc. occurs by lack of love. If we want to enjoy affluent society, we have to share God's love. Without God's love, we can't love neighbor and one self. Self-love that is connected with God's love enables to build up affluent, harmonized society. Selfish person does not sacrifice his interest for the greater interest of others. The economic development driven by selfishness arouses social tension and broadens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The love has the power to solve problems of unbalance in the community. The people who are possessed with God's love are led by an invisible hand to make the same distribution of necessities. The competition in the free market is ideal only in love. The self-interest should be combined with self-love and not with selfishness for a sustainable growth of economic society.

Key words: self-love, selfinterest, selfishness, competition and love, deductive, dialectic,